

정권심판 '열풍'...조국혁신당 '태풍'

강원 8개 선거구 절반 접전...복합 선거구는 국힘 우세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8개 선거구 가운데 4곳에서 접전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여야가 승부처로 꼽는 춘천과 원주의 경쟁이 치열하다.

'강원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이 있는 춘천갑은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와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4년 전에는 허 후보가 보수색 강한 춘천에 처음으로 민주·진보진영 깃발을 꽂았었다. 정치 신인인 김 후보는 춘천에서 활동 중인 비례대표 현역 국회의원을 공천 경선에서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원주갑에서는 민주당 원창목 후보와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가 2년 만의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원 후보는 3선 시장 출신으로 높은 인지도를 앞세우고

있고, 박 후보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수석대변인 등으로 활동한 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원주을에서는 3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 송기현 후보와 기재부 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김완섭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춘천갑처럼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대결이다. 이 3개 선거구 모두 최근 강원일보 등 강원지역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지지율을 기록,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원주 '윤핵관'으로 통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가 있는 강릉도 해당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지지율이 나왔다. 권 후보의 상대는 민주당 김중남 후보다.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뤄내는 등 5선에 도전하는 권 후보를 상대로 치열한 표 경쟁을 하고 있다.

춘천·철원·화천·양구와 동해·태백·삼척·정선, 홍천·횡성·영월·평창 등 복합 선거구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우세라는 평가가 많다. 앞서 실시한 강원지역 5개 언론사 공동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기 때문이다.

춘천·철원·화천·양구은 현 국회 국방위원장이던 한기호 후보가 민주당 전성 후보와 경쟁 중이고, 동해·태백·삼척·정선에서는 '썬윈'으로 불리는 여당 이철규 후보가 민주당 한호연 후보와 대결하고 있다. 홍천·횡성·영월·평창의 현역인 국민의힘 유상범 후보도 민주당 허필홍 후보와 한판 승부 중이다.

속초·인제·고성·양양 역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후보가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낸 민주당 김도균 후보를 상대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리고 있다.

/강원일보=원선영 기자

절대 강자 없는 중원 결투...여야 수싸움 치열

충청

제22대 총선을 10일 앞두고 충청권 판세가 운과를 드러내고 있다. 여야 각 당이 선택을 토대로 우세 또는 경합 지역에 대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선거 막판까지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동구(장철민)와 서구(박범계),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황정아) 등 현역 3명과 영입 인재 출마 지역을 우세로 점치고 있다. 서구갑(장종태)과 대덕구(박정현)는 경합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 유일하게 중구(박용갑)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구 특성상 경합 지역으로 점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부분 지역구를 경합 또는 경합 열세를 전망했다. 동구(윤창현)와 중구(이은권), 서구(양홍규)는 경합, 서구갑(조수연)과 대덕구(박경호)는 경합열세로 전망했다. 유성구갑(윤소식)과 유성구을(이삼민)은 열세로 분류했다.

세종의 경우 세종갑은 혼전, 세종을은 민주당 우세가 예상된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세종은 당초 갑·을 2석 모두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세종갑에서 민주당의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선거판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 간 양자구도 판도가 재편된 가운데, 민주당 성향 야권으로 분류되는 김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을 얼마나 흡수

할지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다. 세종을은 민주당 강준현 후보가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남은 양당 모두 기존 의석(더불어민주당 6석, 국민의힘 5석)을 바탕으로 '11개 선거구' 석권을 최대 목표로 삼았다. 민주당은 강세인 천안·시흥·을·병,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외에 열세 지역에서도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보령시·서천군, 아산시갑, 서산시·태안군, 홍성군·예산군 수성을 전제로 천안·아산·당진시를 격전지로 분류하고 있다.

충북은 청주 4개 선거구와 비 청주 4개 선거구로 총 8개 선거구다.

청주지역 선거구는 민주당 우세 2, 경합 1, 국민의힘 우세 1곳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4개 지역은 경합 3, 국민의힘 우세 1곳으로 전망된다.

청주 상당구와 민주당 텃밭인 청주흥덕구는 민주당 우세가 점쳐진다. 청주청원구는 치열한 박빙 양상으로 격전지로 꼽힌다. 청주서원구는 국민의힘 우세가 점쳐진다. 충주는 막판까지 혼전이 예상된다. 제천·단양 역시 절대강자가 보이지 않는다.

'검경대결' 구도가 형성된 중부3군(증평·진천·음성)은 서로 수성과 탈환을 외치며 경합이 예상된다.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은 당선파티 논란 등이 변수지만, 경합지역으로 분류된다.

/대전일보=정민지 기자

민주당 우세 속 최고 득표율 후보 나올 가능성 높아

전북

4·10 총선이 열릴 앞으로 다가온 전북특별자치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권 심판론'이 강한 전북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모두 과반을 넘기고 있다.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나마 격전지로 분류되는 전주에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가 일당 독주 타파를 외치며 애처롭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전북에선 조국혁신당의 돌풍도 매섭다.

전북은 치열했던 민주당 경선과 반대로 본선은 파장 분위기다. 민주당 후보들은 전국 선거에 미

칠 영향을 고려해 오만함을 경계하고 있지만 대다수 후보들은 이미 촉매를 든 모습이 역력하다.

전북은 이제 보수 불모지를 넘어 사지(死地)로 여겨질 정도로 민주당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 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0개 지역구 싸움을 장담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지나친 자신감이 독이 될까 염려해 이 같은 말이 노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도 하다.

전북 유권자들은 '일관'보다 '싸움권'을 더 지지하는 모습으로 민주당과 비슷한 성향이면서도 강성진보 정당의 조국혁신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 일당 독주는 여야 판세분석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다. 민주당의 ▲전주갑 김윤덕 ▲전주을 이성운 ▲전주병 정동영 ▲익산갑 이춘석 ▲익

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정읍·고창 윤준병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후보는 모두 상대 후보들보다 큰 격차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10석 전석 석권이 예상된다.

전북에 등록된 국회의원 후보 33명 중 민주당 후보 10명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후보는 국민의힘 양정무(전주갑)·정운천(전주을) 후보와 진보당 강성희(전주을) 후보, 새로운미래 신원식(전주갑) 후보 정도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이 판세에 반전을 꾀하려면 정부와 여당에 제기된 '호남 홀대론'을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나서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전북일보=김준영 기자

민주, 3곳 우세...국힘, 서귀포 백중 열세 분류

제주

4·10 총선에서 제주지역은 3개 선거구에 모두 7명이 출마했다.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국민의힘의 의석 확보 여부에 쏠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 지난 20년 동안 전 선거구에서 5연승을 거뒀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3개 선거구 모두 우세 지역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제주시갑·제주시을에서 열세인 반면, 서귀포시에서는 백중 열세로 막판 대역전극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갑 선거구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민주당 문대립 후보(58)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48)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문대립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현역인 송재호 의원을 꺾고 본선에 올랐다. 선대위는 문 후보가 제주도의회의 의장, 청와대 비서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을 역임한 인지도를 볼 때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맞서는 고광철 후보는 19년 동안 국회의원 보좌역을 하면서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이다. 선대위는 지난 3월 초 이뤄진 전략공천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인지도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보다 밀리고 있다고 보고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제주시를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49),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56),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39)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현역의원인 김한규 후보의 높은 지지도를 볼 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우세 지역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 상대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열세 지역으로 내다봤다. 녹색정의당 선대위 역시 판세가 열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근 후보(56)와 제주경찰청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61) 간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세를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백중 열세로 판단하면서도 부동층과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표 집점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제주일보=최동철 기자

민주당 독주...국민의힘·새로운미래 등 득표율 관심

광주·전남

4·10 총선을 10여일 앞둔 광주·전남지역의 전반적인 판세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뚜렷하다. 민주당의 텃밭인 만큼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고 있고, 조국혁신당의 돌풍 효과로 인해 민주당 '공천 갈등' 잡음에 등 돌렸던 지지층도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그래서인지 접전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등 수도권, 부산지역과 달리 격전의 전문감은 돌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불모지'인 광주·전남지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권심판'론이 강한 지역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꺾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호남에서의 민주당 강세는 조국혁신당의 돌풍 효과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권심판' 표심 자극에 민주당 지지율 상승 효과도 이뤄지고 있어서다.

뉴스토마토 의뢰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3일~24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5주차 주례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라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66.9%로, 전주에 비해 6.1%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10.2%로, 5.4%포인트 하락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는 조국혁신당이 45.1%로, 전주 40.6%에 비해 4.5% 올랐다.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민주당 지지율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셈이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응답률 7.5%·자

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국민의힘이 광주·전남에서 신경을 쏟고 있는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선거구의 이정현 후보에 대한 기대적인 전망은 수그러 들지 않고 있어 향후 총선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각 선거구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느냐도 이번 총선의 관심사로 꼽힌다.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현재 광주·전남 18석 석권을 장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출마한 광주 광산을 선거구와 광주·전남지역 8개 선거구에 입후보한 무소속 후보들의 득표율도 관심거리다.

/광주일보=최권일 기자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 자산규모 1조5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